

BASF, 공업용 코팅사업 키운다!

세계 시장점유율 30%로 끌어올릴 계획 ... NAFTA에 독점공급 체결

BASF는 2002년 12월 Spain Guandaljarn에서 기업전략회의를 열어 2003년 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공업용 코팅 시장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려 3년 안에 매출신장률 2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스페인 Guandalajarn 소재 Waterborne Paint 3000톤 플랜트를 완공하는 등 BASF는 자체 성장(Organic Growth)과 인수를 통해 공업용 코팅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해 기업성장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BASF는 아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현재 5%의 코팅 매출액이 앞으로 적어도 2배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년 안에 한국에 OEM 및 공업용 코팅을 선보이고 2005년까지 중국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며, 일본의 NOF와의 합작회사 BASF NOF Coating(연간 매출액 3억유로)을 통해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미 NOF(Nichiya Coatings North America)와 합작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에 코팅을 공급하고 있다.

BASF의 OEM 시장점유율은 24%로 매출액은 40억유로에 달하며 최근 Nissan Motoriberica와 시스템 제휴계약을 체결해 Nissan의 바르셀로나 플랜트에 OEM 코팅을 납품할 예정이다.

BASF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지역 이외 자동차 생산기업들과 30여개의 제휴를 체결해 Unit Basis당 비용에 근거해 대금을 받게 되며 NAFTA 지역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2년 BASF의 코팅 매출액은 7% 감소한 21억유로였지만 수익실적은 상당히 높았다.

매출이 떨어진 주원인은 장식용 페인트기업이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환율 변동 때문으로 라틴아메리카 코팅 수요의 45%는 OEM, 25%는 공업용 코팅, 20%는 Refinish 나머지 10%는 장식용 페인트가 각각 차지하고 있다.

BASF는 2000년 수익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지역에서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그 중 Refinish 부문이 2자리수 수익률을 올려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3년 매출액은 22억5000유로를 넘어설 전망이다. 2005년에는 OEM만으로 25억유로를 벌여, 총 50억유로가 넘는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업용 코팅은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고 Refinish는 현재의 20%를 유지하며, 라틴아메리카의 장식용 페인트는 나머지 5%를 차지할 전망이다.

BASF는 OEM과 Refinish 부문에서 PPG, DuPont에 이어 최대이며 Oil Coating에서는 Akzo Nobel 다음인 반면, 공업용 페인트 부문에서 만큼은 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10위이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South America와 NAFTA 지역의 몇개 공장을 폐쇄하고 BASF Coating의 강도와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BASF Coating은 Nafta에 8개의 플랜트를 가동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6개만 가동시킬 방침이며,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장이 폐쇄되면 5% 이상의 고정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ASF Coating은 인수대금을 포함해서 연간 2억9000만유로를 프로세스의 효율성 증진에 사용하며 코팅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9/15>